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68호 [루체 제26042호] 주체 107 (2018)년 6월 17일 (일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가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9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주체철생산성과 계속 확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혁신적인 당중앙위원회의 4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목표와 임무를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 성과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 온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이어 자강경제민주주의의 기치높이 만리마속으로 당중앙을 세차게 일으키려는 김책의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튼튼한 수업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합성부동위원소의 방사도소조에서는 원핵기업소에서 산소염법용광로와 대용산소분리기운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주체철생산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기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산소염법용광로작장과 산소분리기분공장에 내려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김책의 로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의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방사도소조의 지도 밑에 원핵기업도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혁신적정치사업들

적극 벌여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 투쟁적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또한 방송선 전자활동과 기동출력동태활동을 활발히 벌여 전후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주체철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산소염법용광로작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직장일꾼들은 주체철생산에서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학습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 로동자, 기술자들이 각이한 정황들을 제때에 능란하게 처리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소유하게 하고있다. 직장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로작방법들을 실현하여 도입하고있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펼쳐나선 유색공물들은 용광로의 윤희공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 일꾼들과 협력화안들을 탐구도 안출하고 있다. 산소염법용광로작장 사수들의 경쟁을 벌이고 따라달리기, 따라배우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싸우는 고지에 단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산소생산량을 부쩍 높이고있다. 보수부와 원료보장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염소와 삼산화철을 제때에 찾아내어 되치고있고있다. 그리하여 심비질의 가용률을 높이고 산소염법용광로의 만가동률도 보장하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주체철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해내고있다. 산소량이자 곧 주체철생산량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유속들을 자재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산소염법용광로에 집중된 산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싸우는 고지에 단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산소생산량을 부쩍 높이고있다. 보수부와 원료보장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의 가용률을 높이고 산소염법용광로의 만가동률도 보장하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주체철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해내고있다. 산소량이자 곧 주체철생산량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유속들을 자재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산소염법용광로에 집중된 산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싸우는 고지에 단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산소생산량을 부쩍 높이고있다. 보수부와 원료보장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의 가용률을 높이고 산소염법용광로의 만가동률도 보장하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주체철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해내고있다. 산소량이자 곧 주체철생산량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심비질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유속들을 자재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산소염법용광로에 집중된 산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 활발

철도운수부문에서 무볼트고착장치 개발도입

당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무볼트고착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철길강도를 높이는 투쟁이 한창이다. 지난 시기보다 철도운행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고 철길보수에 시 많은 노력을 집약할수 있는 무볼트고착장치를 개발한것이 새, 새로 만든 무볼트고착장치 수천m의 길이에 도입되어 시험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성과는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일면적의 면적이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자력갱생, 건인불사의 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벽하고 철길의 준강화, 고속도화, 추진하며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지는 현장들에 나가 대중의 심정에 붙어 가는 혁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도록 하는 한편 자주국책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 전개하였다. 일꾼들은 철도안전과 철도설계안전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맡아주어 그들이 무볼트고착장치를 짧은 기간에 개발할수 있게 한데 이어 각 철도국과 부, 공장, 기업소에서도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정밀역과 함흥차량부속공장에서 정밀한 보이기사업을 진행하여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험교훈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지는 현장들에 나가 대중의 심정에 붙어 가는 혁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도록 하는 한편 자주국책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 전개하였다. 일꾼들은 철도안전과 철도설계안전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맡아주어 그들이 무볼트고착장치를 짧은 기간에 개발할수 있게 한데 이어 각 철도국과 부, 공장, 기업소에서도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정밀역과 함흥차량부속공장에서 정밀한 보이기사업을 진행하여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험교훈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능력확장공사 완공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대흥정년영웅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얼마전에 광석을 다량채굴, 다량처리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물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흥정년영웅광산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앞으로 마구내사광산의 주체화을 실현한 선구자들과 사회주의 대진군의 맨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달려나가기 하고있습니다. 광석을 다량채굴,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신중으로 받들고 새금의 대흥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일꾼들과 광부들이 전진정진을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실현하였다.

전진정진은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광석생산량이 아주 좋은 경지이다. 광산에서는 이번이 전진정진을 대흥화, 현대화로 쓰며 마구내사광산에서 광석생산량도 지난해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흥정년영웅광산은 질 좋은 마구내사광산이 부진장하게 대흥화하는 전도유망한 광산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관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광부들은 무학보광산을 전진정진시켜 주체철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진정진광공사를 힘있게 벌여왔다. 광산위원회에서는 영웅광산이라고 불리우던 위대한 장관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광부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정치사업들 공세적으로 벌여왔다. 새 소식들이 편이 속보반에 소개되고 부는가 귀담겨는 일터마다에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광부들은 무학보광산을 전진정진시켜 주체철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진정진광공사를 힘있게 벌여왔다. 광산위원회에서는 영웅광산이라고 불리우던 위대한 장관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광부들이

는데 맞게 비록만반전투도 활발히 벌어졌다. 광산의 녀령원들도 전진정진광공사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광석생산을 부쩍 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결사관철해나갈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광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수천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번 대흥화 실현된 전진정진에서는 광석생산을 시작하여 첫날부터 종전까지 2배의 실적을 올리고있다. 생산활동의 돌파구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고있는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흥정년영웅광산에서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관유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대안친선유리공장

혁신적인 당중앙위원회의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펼쳐나선 공장에서는 로동계급은 지난 5월 관유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관유리생산계획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품은 투쟁열정이 나라가 생산자대중을 위호장조로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치사업에 힘있게 참여하여 혁신적정치사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관유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정밀역과 함흥차량부속공장에서 정밀한 보이기사업을 진행하여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험교훈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관유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정밀역과 함흥차량부속공장에서 정밀한 보이기사업을 진행하여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험교훈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관유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정밀역과 함흥차량부속공장에서 정밀한 보이기사업을 진행하여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험교훈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철도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개발된 무볼트고착장치는 종전의 볼트식에 의한 철길고착에 비해 부분용이 적은것으로 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고장진기작업을 막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볼트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고착장치를 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각 철도국과 철도부, 국,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무볼트고착장치생산투쟁이 벌어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량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력본초를 푸는것은 5개년전투계획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과립이다.> <강계청년발전소 2호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관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발전소당 조직의 지도 밑에 2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주신 현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발전실비보다 더 애써 싸워서 이룩한 자기를 넘지 않는 전진정진계획을 앞세워 실현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계속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발전실비들에 대한 합리적인 전담을 열어놓는데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2)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피력하는 심정에 만장일치로 온 나라가 혁명적인 총동원을 힘차게 벌여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으로는 참관자들의 물결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결속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다.

세계사회의운동의 역사적교훈은 혁명의 때가 바뀌는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병도가 올바르게 계승되지 못하면 사회주의위업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필약한 요구로, 중추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정세의 필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에 대한 장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이라는 글밥이 부각된 벽면앞에 이르렀다.

벽면에는 사업을 도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사진본들이 정성되게 모셔져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사진본들을 우리로써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당시 항일의 보루사투리는 물론 온 나라 인민이 비범한 용기와 자질을 갖추시고 시대와 혁명애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꼽으며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르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제 63(1974년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전제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어머니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 위대한 역사적 사면에 접하여 온 나라 장산은 얼마나 뜨거운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졌던가. 이에 대한 장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혁명위업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송연한 마음으로 다음벽면에 선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60(1971년 9월) 무포의 남시미에서 몸소 사용하신 낚시대가 안겨져 있었다.

은 사 회의 김일성주의화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여주는 참모로 뜻있는 사적들이었다.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사건들은 낚시대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광장도를 현지지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의 거룩한 자취가 새겨져있는 무포를 찾으신다.

7호봉동에서 낚시를 드리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팔뚝만 한 산헌어들이 까맣게 모여와 미끼를 물어당기고있는것도 전혀 감촉하지 못하신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었다.

수행한 일군이 의미해하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야야 인격을 느끼고 위대한 장군님을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꼽으며 존경하고 흠모하며 따르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는 주제 63(1974년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전제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을 어머니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 위대한 역사적 사면에 접하여 온 나라 장산은 얼마나 뜨거운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졌던가. 이에 대한 장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혁명위업계승문제 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송연한 마음으로 다음벽면에 선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60(1971년 9월) 무포의 남시미에서 몸소 사용하신 낚시대가 안겨져 있었다.

은 사 회의 김일성주의화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여주는 참모로 뜻있는 사적들이었다.

이후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사상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

을 울어잡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지 못하였다고 되시었다.

그날의 강동길은 사면에 대한 장사의 이야기를 듣는 참관자들의 가슴은 송연한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어머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치지 못할 밤과 밤들은 그 얼마나 이었나.

혁사의 그날은 바야흐로 밝아왔다.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에서 어머니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정하여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의 역사적화폭을 담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본들을 우리로써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온

사회적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전한적의 빛을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강령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되고 혁명의 개척기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적일관성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당사상사업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강사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후 그 실천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방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선진적인 활용 방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온 사회를 일석화하는 이 거창한 위업을 위해서 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부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석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되는 전방김일성주의화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병도에 의하여 우리 당인민들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기조하여 당건설, 당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전방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기법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의 새 단계마다에서 수령의 병도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간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 당은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병도가 재현되고 수령님의 품포가 꼭 차넘친 위대한 당, 가장 모순속과 세련된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 생기발랄하고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위대한 당으로 그 위용을 날김없이 펼쳐놓을 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 김일성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을 군건설의 총적

현실이 일어나도록 천지에 직접 나가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본들과 그이의 병도를 받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수령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은 우리로써 뜻깊은 혁사의 그 나날에 새워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전방정책을 세심 알맞게 실천한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인민군과 자비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이 동원되어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일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이런 70일전투는 전당이 총동원된 열매를 맺어 만민을 구해내고 열매의 긴장한 계획과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함으로써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총성의 대전투입니다. ...

70일전투, 돌이켜볼수록 그 나날은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써만이 아니라 탁월한 병도자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비상히 과시된것으로 하여 세계정치계를 전감시시킨 경이적인 나날이었다.

역사적인 70일전투를 몸소 맡고하시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고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에 대하여 흥분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다음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신 내용, 출판보도사업에서의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신선행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김을 옮기는 우리의 눈앞에 가극혁명, 연구혁명, 수행형상상도, 다양한 예술상조라고 쓴 하나하나의 글밥들이 안겨졌다.

이 글밭들은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며 우리의 문학예술이 걸어온 지팡한 행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사는 말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혁사의 나날을, 《세계 최고봉의 가극》, 《황혼한 조건의 가극예술에 영감을!》 등 당시 세계 전보적 인민들의 목동같은 반항이 감회깊은 추억의 때아리를 불러오는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병도 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써겨온 빛나는 년대를 돌이켜보는 참관자들의 눈앞에 하나의 글밥이 안겨져 있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남의 돈을 따거나 남의 벽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만 건설한것을 자랑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신, 조선의 기상을 상징하는 구호,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간 한 전략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3대혁명시절발전시기에 대한 참관한 마친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1970년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 오는데에 대한 최고병도자 김일성동지의 병도를 총동원으로 받들 줄기가 뜨겁게 이어져있었다.

글 본사기자 전 광 남 사인 본사기자 김 진 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충년은 날새초전을 불어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함경남도전남지방에 장중히 모시었다.

인민들의 신생활향상을 위해 그 도록 마음쓰신 어머니수령님께서 5주제 45(196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6(196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7(196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8(196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9(196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0(197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1(197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2(197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3(197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4(197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5(197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6(197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7(197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8(197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59(197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0(198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1(198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2(198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3(198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4(198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5(198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6(198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7(198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8(198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69(198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0(199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1(199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2(199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3(199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4(199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5(199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6(199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7(199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8(199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79(199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0(200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1(200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2(200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3(200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4(200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5(200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6(200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7(200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8(200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89(200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0(201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1(201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2(201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3(201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4(201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5(201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6(201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7(201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8(201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99(201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0(202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1(202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2(202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3(202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4(202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5(202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6(202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7(202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8(202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09(202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0(203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1(203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2(203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3(203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4(203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5(203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6(203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7(203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8(203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19(203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0(204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1(204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2(204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3(204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4(204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5(204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6(204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7(204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8(204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29(204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0(205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1(205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2(205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3(205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4(205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5(205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6(205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7(205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8(205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39(205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0(206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1(206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2(206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3(206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4(206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5(206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6(206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7(206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8(206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49(206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0(207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1(207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2(207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3(207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4(207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5(207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6(207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7(207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8(207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59(207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0(208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1(208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2(208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3(208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4(208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5(208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6(208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7(208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8(208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69(208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0(209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1(209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2(209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3(209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4(209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5(209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6(209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7(209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8(209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79(209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0(210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1(210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2(210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3(210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4(210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5(210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6(210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7(210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8(210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89(210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0(211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1(211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2(211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3(211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4(211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5(211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6(211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7(211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8(211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199(211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0(212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1(212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2(212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3(212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4(212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5(212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6(212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7(212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8(212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09(212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0(213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1(213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2(213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3(213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4(213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5(213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6(213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7(213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8(213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19(213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0(214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1(214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2(214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3(214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4(214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5(214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6(214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7(214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8(214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29(214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0(215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1(215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2(215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3(215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4(215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5(215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6(215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7(215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8(215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39(215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0(216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1(216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2(216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3(216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4(216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5(216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6(216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7(216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8(216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49(216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0(217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1(217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2(217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3(217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4(217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5(217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6(217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7(217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8(217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59(217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0(218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1(218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2(218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3(218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4(218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5(218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6(218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7(218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8(218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69(218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0(219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1(219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2(219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3(219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4(219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5(219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6(219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7(219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8(219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79(219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0(220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1(220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2(220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3(220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4(220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5(220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6(220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7(220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8(220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89(220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0(221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1(221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2(221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3(221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4(221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5(221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6(221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7(221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8(221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299(221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0(222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1(222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2(222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3(222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4(222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5(222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6(222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7(222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8(222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09(222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0(223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1(223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2(223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3(223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4(223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5(223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6(223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7(223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8(223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19(223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0(224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1(224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2(224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3(224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4(224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5(224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6(224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7(224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8(224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29(224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0(225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1(225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2(225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3(225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4(225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5(225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6(225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7(225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8(225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39(225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0(226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1(226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2(226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3(226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4(226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5(226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6(226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7(226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8(226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49(226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0(227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1(227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2(227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3(227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4(227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5(227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6(227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7(227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8(227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59(227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0(228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1(228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2(228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3(228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4(228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5(228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6(228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7(228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8(228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69(228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0(229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1(229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2(229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3(229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4(229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5(229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6(229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7(229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8(229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79(229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0(230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1(230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2(230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3(230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4(230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5(230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6(230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7(230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8(230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89(230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0(231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1(231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2(231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3(231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4(231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5(231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6(231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7(231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8(231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399(231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0(232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1(232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2(232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3(232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4(232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5(232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6(232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7(232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8(232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09(232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0(233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1(233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2(233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3(233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4(233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5(233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6(233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7(233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8(233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19(233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0(234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1(234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2(234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3(234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4(2344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5(2345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6(2346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7(2347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8(2348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29(2349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30(2350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31(2351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32(2352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33(2353년) 5월과 이듬해 5주제 434(2354

